

한국씨티은행, 직장인신용대출 한도 4천만원 증액

한국씨티은행은 씨티 직장인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기존 최대 1억4000만원에서 최대 1억80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한도 증액은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중 개별 대출 상환 방식의 신규, 대한, 증액의 경우에 적용된다.

씨티 직장인신용대출은 한국씨티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연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오는 9월 30일까지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한 직장인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대출 신청 전,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대출상담/신청 페이지에 있는 '간편 한도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용등급, 재직과 소득정보, 현재 부채현황, 금리 정보를 입력해 한국씨티은행 신용대출 상품으로 가능한 최대 대출금액 및 금리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한국씨티은행 신용대출 상품으로 부채를 통합했을 시 이자 금액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그래프로 한 눈에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라기자 naleyhappy@meconomynews.com

‘2% 초반’ 갈아타는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금융당국, 제2의 안심전환대출 출시
9억 미만 주택자 우선 가입… LTV 70%까지 인정
대출구조 개선하면서 서민지원 강화할 방침

금융당국이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제2의 안심전환대출을 8월 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존 금리 인하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자 당국이 부랴부랴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의 금리 하락 현상과 주택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많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금융채 5년물 장기금리는 1.62%인 반면 신규 코픽스 단기금리는 1.78%로 0.16%p 높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대한대출(refinancing)과 관련한 규제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들이 저금리 정책모기지론 전환할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자역의 경우 LTV 규제는 60%에서 40%로 더 엄격해졌다. 하지만 대한대출 상품은 예외적으로 주택가격의 70%까

지 담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60%가 적용된다.

당국은 이를 반영해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 만기는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정책 모기지상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출 구조도 개선하고 서민도 지원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20년 상환조건으로 3억원을 빌린 대출자의 경우 이자가 3.5%에서 2.4%로 낮아져 원리금 부담액이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2.5~2.65%대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 만기일시 상환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장기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LTV와 상관없이 갈아타기를 허용해줬기 때문에 4년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경기침체와 시장상황은 악화됐고 한국은행은 기존 금리를 점차 인하하기 시작했다. 8월 말 공개되는 고정금리 변동 상품의 경우 최근 금리 상황을 고려했을 때 2% 초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역시 "새로 구상하는 대한용 정책모기지



금융투자업계가 요구해 온 기금형 퇴직연금과 '다폴트 옵션(Default option)' 도입의 법제화가 본격 추진된다. 근로자들의 퇴직금 관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개선될지 주목된다. 사진=시장경제 DB

는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 사례를 참고해 설계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지원자격이나 조건은 2015년보다 까다롭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로 인해 우선 당국은 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2주 정도 신청을 받은 뒤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기준을 참고하기로 했다. 금리 수준이나 공급 규모와 같은 구체적 요건은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해 추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 않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 가입이 저조했다. 전세금 사고가 많이 터지는 빌라나 다세대주택 세입자는 가입하기조차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가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에 마련한 뒤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 시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세입자의 불안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료 부담이 낮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출시하고 다가구나 빌라 거주자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채무조정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주담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을 통한 채무조정을 통해 한 번 더 채무조정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 내려

반도체 경기 악화…수출길 먹구름 짙어져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등 내수도 불안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와 함께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내렸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은 불안한 우리나라 안팎의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는 평가다. 그만큼 한국은행 입장에서 급한 불을 꺼야 했던 것이다.

18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인 2.5%보다 0.3% 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도 전망치 역시 2.6%에서 2.5% 조정해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단 견해다.

원인은 투자와 수출 부진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생산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보호무역주의 관련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생산 및 교역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IT산업은 반도체 단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량이 상당폭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반도체 경기 악화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까지 겹치면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비IT부문도 글로벌 수요 부진,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신규 투자보다는 유지·보수 중심으로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성장에 대한 지출부분별 기여도 역시 올해 내수 기여도는 1.6% 포인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기여도는 2018년 1.1% 포인트에서 0.6% 포인트로 대폭 하락할 것으로 한국은행 측은 예상했다.

민간소비부문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가계소득은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명목임금상승률도 낮아지면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지난해 말 이후의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 이전지출 확대 등은 가계의 소비여력 증대를 통해 민간소비의 증가 흐름을 일부 뒷받침할 것이라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7%, 2020년 중 1.3%로 전망했다. 올해 물가 상승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 요인과 정부 정책 측면에서 물가 하방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오름세가 둔화될 것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시장경제DB

란 분석이다.

내년에는 간접세 인하 종료 등으로 정부 정책의 영향도 줄어들면서 올해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졌지만 오름세는 지난 전망에 비해 완만할 것이라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590억 달러, 내년 585억 달러로 내다봤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9년 3%대 중반, 2020년 3% 초반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올해 4분기부터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발표 시점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1·4·7·10월에 발표했지만 앞으로 2·5·8·11월로 바뀐다.

이에 따라 올해 마지막 경제전망은 11월 발표하고 2021년에 대한 전망도 함께 내놓는다.

차진형 기자 jinhyung@meconomynews.com

유한책임대출 늘리기로… 금융사에 인센티브

금리 리스크 경감 상품 9월부터 0.25%포인트 ↓

정부가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 책임지는' 유한책임대출의 확산을 위해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팔을 걷어부쳤다.

1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하고, 금융사들이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를 최대 0.03%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한책임대출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유한책임대출을 민간

금융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할 것"이라며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의 취급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가입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대출금액보다 하락하면 그 차액만큼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당해 왔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유한

책임대출시 금융사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상품의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출연료를 금리에 반영해 인하는 식이다. 출연료는 종전의 0.30%에서 0.0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세부 설명과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올해 9월 출연료 납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나라기자 naleyhappy@meconomynews.com

Spatial awareness.
Some people just don't have it.
Volkswagen Park Assist.

Outdoor Bronze Lion Campaign

Title: PISA 피사의 사탑
Client: VOLKSWAGEN 폭스바겐
Agency: ALMAPBBDO, Sao Paulo
Product: VOLKSWAGEN PARK ASSIST 폭스바겐 주차 보조시스템

Copy: Spatial awareness.
Some people just don't have it.
공간 인지능력.
어떤이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